

# 경제침략 — 그 천의 얼굴



곽 광 호  
(고대사학과·경제학)

세계경제의 구조가 불균등 분업구조로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성격은 특화되어 제국주의라는 단계로 의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삼·하부 구조간의 계급대립이 첨예화되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의 종속관계가 심화되어 갔다.

특히 선진제국의 초국적기업은 저개발국의 값싼 노동력 착취를 통한 엄청난 초과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외의 값싼 모순은 점점 극대화 되어갔다.

이들 국책하기 위한 기본 인식태도를 정립하고자 종속경제의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I. 들어가는 말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자본주의의 위기와 실패,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성립, 제국주의의 붕괴(諸國)내에서의 계급대립의 격화, 민족해방운동의 고양과 식민지 체제의 붕괴에 직면하여 각국의 독립자본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공존의 이해관계로 강하게 결속하여 왔다. 이들의 행동양식은 군사·정치·경제·문화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행태들은 주로 초국적기업(TNC)과 초국적은행(TNB) 등이 신식민주의의 경제적 지배와 예속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현대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의 지배와 착취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기 위기가 강화되고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신식민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가 실시한 '원조'가 오랫동안 신식민주의의 경제적 지배와 예속의 수단으로 되고 그 후 원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수단은 사적(私的)자본(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였으며,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형태로 실현되는 초국적기업의 해외침투는 변화된 역사적 조건에서 신식민주의의 주된 경제적 침략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식민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착취구조를 보고자 한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제국주의의 세계체제에 위치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관련성이 포함된다.

## II. 신식민주의의 전개과정

자본주의의 발전법칙으로서의 역사적 발주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제국주의는 신식민·종속국에 대해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해 식민지 초과이익을 수취해 왔다. 이러한 식민지 착취형태는 독점 자본그들간의 경제·정치적 간극을 자본주의의 열강간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에서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적대적 모순의 총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독점자본은 그 자체로 자유경쟁의 대립에서 보나 더 첨예한 모순, 알력, 분쟁을 야기시킨다. 독점이 경쟁을 배제하는 이면에는 비독점간의 격렬한 경쟁이 존재하면서, 내부에 선 카르텔 가격의 수조, 생산량의 할당, 시장의 분할, 설비투자자의 규제를 둘러싸고 부단한 대립이 형성된다. 이러한 독점의 지배는 또한 일국의 범위를 넘어 생산의 국제화와 자본수출을 통해 보다 더 유리한 해외지역에서의 잉여가치 수취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주로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값싼 원료의 구입이나 값싼 노동력, 그리고 판매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독점자본은 필히 세계적 범위에서 자기세력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제적 독점간의 경쟁 격화를 야기하며, 세계시장을 보다 더 넓게 지배하려는 국제 독점으로 이어져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시장을 분할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제적 독점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지배와 예속의 수단으로 되고 그 후 원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수단은 사적(私的)자본(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였으며,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형태로 실현되는 초국적기업의 해외침투는 변화된 역사적 조건에서 신식민주의의 주된 경제적 침략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신식민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착취구조를 보고자 한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제국주의의 세계체제에 위치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관련성이 포함된다.

# 선진자본 '초국적기업' 통해 자체모순 해결

무엇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점은 독점자본주의 자체 모순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기원모순으로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간 모순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방식은 제2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등으로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반식민지 국가가 독립하게 됨에 따라 제국주의의 식민체제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반영과 준비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러시아 혁명기간에 전반적 위기의 1단계가 거처면서 일시적·상대적 안정기를 갖지만,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법칙'에 의한 제국주의간 모순의 격화가 반영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반적

# 경제적 종속은 자주성 회복으로 극복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제국주의는 식민지·종속국이 국민적 주권을 승리해냈지만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를 간접적 통제형태로 착취를 계속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1961년 카이로에서 열린 아프리카 인민회의(African people's Conference)는 그 주제로서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를 채택하였으며 그 정의를 정치·경제·사회적, 군사적 혹은 기술적 방법을 통한 간접적이고 교묘한 지배형태의 화생이 되고 있는 신생국에 있어서, 그 정치적 독립의 형식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식민지 체제의 잔존'으로 내리고 있다. 이러한 신식민주의의

발생시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식민지 체제의 위기) - 전 반적 위기의 반영 - 라는 측면과 식민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의거하여 신식민주의를 파악하고 있다. '콜린 레이스(Colin Leys)' 경우는 신식민주의의 핵심을 외 국가본과 밀접한 동맹관계에 있는, 또한 종속관계에 있는 계급 혹은 계층의 형성으로 보고있다. 토生長層은 신식민주의가 사회주의의 확립과 발전, 민족해방운동에 의한 식민지 체제의 위기, 제국주의의 강화 및 모순의 격화라는 국제적 관계가 신식민주의를 필연화시킨것으로 보고있다. 오늘날 이러한 신식민지성은 70년대 초에 제국주의 경쟁의 주요요인이 미국·EC·일본등으로

나타나면서, 80년대에 들어 이들 간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재편과정이 생산의 국제화와 자본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분업구조를 갖는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은행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대제국주의가 어떠한 착취구조로 신식민지를 지배하여 왔는가를 보고자 한다.

## III. 신식민지 착취구조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법칙에 의한 제국주의간 모순의 격화로 인한 2차 대전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재편과정과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민족해방운동,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 이를 반영한 전반적 위기등에 의 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방식을 변화하게끔 하였다. 이는 결국 4대모순의 반영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신식민지 착취구조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상호 보완관계를 맺으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전개된다. 신식민지 주요 지배방식은 첫째, 정치적 군사적 형태를 띤다. 군사·정치·문화, 양국간

## 상호의존이라는 이름으로 선진자본은 발전도상국에 자본주의의 체제관계를 이식하여 자본주의 체제 전체로의 '생산적 부속물'로 체제내로의 편입을 시도한다

의 원조는 1)전체 자본수출에서 국가자본수출이 주요형태이며 2)원조 조건이 완화되어있다. 그리고 3)사적 독점자본의 경제적, 금융적 지배의 유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신식민주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등이다. 맥도프(H. Macdoff)는 경제원조의 목적을 이렇게 보고있다. 1)사적 독점자본을 위한 문화개방의 강제 2)통상 및 투자기회를 찾는 사적 자본을 위한 직접적·경제적 이익의 획득, 3)발전도상국 경제개발을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것, 4)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경제·정치·군사적 형태를 띤다. 군사·정치·문화, 양국간

이러한 신식민주의의 지배방식은 새로운 현상 이면에는 지금까지 토착 봉건적 지배자와 반 민족적 매관 자본가를 수중에 넣고이들을 식민지 지배의 사회적 지주로 삼아왔으나 오늘날에는 민족자본가의 일부에 의한 양보를 주고 중간층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제국주의의 지주를 삼고있다. 이제까지의 식민지국의 경제구조는 제국주의의 종속국의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 원료의 공급지, 공업제품 판매 시장화등 일련적, 기형적 경제구조였다. 제국주의는 이러한 경제구조를 전제로 발전시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상호의존 또는 협력관계라는 이름하에 발전도상국에 자본주의의 체제관계를 이식하여 자본주의 체제 전체로

이들 통한 생산의 국제화 그리고 국제분업구조속에서 2차대전 이후 여러가지 변화양태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신식민주의의 지배와 착취형태에서 초국적기업의 주도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도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즉, 첫째 생산과 자본에서 고도의 집중이 이루어진 독점체이고, 더구나 그것은 단지 생산부문에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산업독점체일 뿐 아니라, 거대은행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현대 금융자본의 한 형태이다. 둘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수출에 의해 투자자본의 유통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그 생산과 판매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잉여가치의 획득을 겨냥하고있다. 셋째, 본국 모기업을 정점으로 한 '국제트러스트' 형태를 취한다. 결국 초국적기업은 1960년대 이후에 보편화되면서 현대 금융자본의 국경을 초월한 잉여가치생산의 확대, 가치증식과정의 대외적 팽창을 위해 발전된 국제트러스트이다. 이와같은 초국적기업은 생산·유통·판매관리형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지배와 약탈, 규모 등에서 그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중 몇가지를 들면 1)투기적 방법으로 통화정책 마비- 거대한 금융력을 가지고 세계적 규모에서 기업내 분업체제를 수립하여 단기자본의 달러의 대량판매를 통한 환율조작이다. 2)내부 분업과 가격조작(예)인전가격)을 이용, 3)기술적 독점에 기초하여 기술을 제공받는 기업이나 나라들에 예속적인 여러부대조건들을 강요하는 것등이다.

## IV. 마치는 말

이상의 신식민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착취구조의 변화과정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역사적 지위를 규정한다면 후퇴하고 있는 식민주의이며 붕괴과정에 있는 식민주의이다.

이러한 분석의 기본방법에는 유물론적 변증법의 방법을 풍부하게 하는것에 의해 독점자본주의가 어떻게 스스로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 발전하여 그 직접적 계승이면서도 그 반대물로 전화하는가를 해명하고, 19C-20C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질적 제변화를 총체적으로 해명하여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이행을 예시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다. 식민지체제의 붕괴,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형성이라는 현상은 제국주의의 지배체제를 압축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와 실패, 개발도상국의 세계정치에서의 새로운 자립적 요인으로의 전화하는 체제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의 주요인이다. 우리가 제국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식민지 체제의 붕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레닌의 제5표지의 의의가 상실되는 근거는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체제의 붕괴라는 것은 단지 낡은 형태에서의 제국주의의 지배가 끝났음을 의미할 뿐이며, 경제적 식민지화가 완성되지 않은 현상에서, 제국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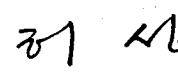
◇세계 경제구조 개편의 필연성과 그 의미  
◇미국 독점 자본의 직접투자는 금융·기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미국 City bank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2



“삼촌! 물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정말 신날텐데...”

물위로 달리는 자동차를 다른 말로 수륙양용 자동차라 하는데 이미 2차대전때 독일에서 개발해 전쟁에 사용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군에도 수륙양용 장갑차가 있지만 아직 보통사람들이 모두 타고 다니는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군용 등 특수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거란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중에 있으니까,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땐 틀림없이 플라스틱처럼 가벼워서 물위로 떠다니는 자동차, 잠수함처럼 물속을 마음대로 달리는 자동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거야. 그래, 현준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 보렴. 물 위에서 물속까지 자유롭게 달리는 수중자동차를 만드는거야.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넓은 수평선을 마음껏 달리며 파도타기도 하고 바닷속의 신비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수중자동차-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나?

미래 금융·재료공학과 2년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現代自動車